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독서실태 조사 연구*

A Study on Reading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송민선 (Min Sun Song)** , 장인호 (Inho Chang)***
황금숙 (Gum-Sook Hoang)**** , 김수경 (Soo-Kyoung Kim)*****

목 차

1. 서론
2. 고양시 독서실태 조사
3.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분석해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서실태 조사 관련 선행 연구 및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설문 문항 등을 참고하여 성인 및 학생 응답자 특성을 반영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 중인 성인 960명,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서 자료의 범주를 전통적인 종이매체에서 다양한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실제 도서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운영 방식 등으로 독서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 넷째, 독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환경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 내 접근이 쉬운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독서문화진흥사업 중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고양 북페이' 사업 등은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reading in Goyang citizens, and to utilize it as a base data for Goyang City's 2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To do this, including references related to reading survey and the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s, the questionnaires that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adult and student respondents constructed. Then, the survey of 960 adults and 540 students in Goyang City condu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nd several useful suggestions deduced for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First, the category of reading materials have to be expanded from the paper media to the various media. Second, the expansion of collections in libraries and the services that will help actually buy books are necessary. Third, various reading programs should develop, and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reading and club activities through online should also be increased. Fourth, the facilities and service environments for activating reading should ensure that the accessibility of everyday life. Finally, among the existing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jects, the 'smart libraries', 'Inter-library loan services', 'reading and cultural programs management', and 'Goyang Book Pay' projects need to be sustained and expand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actual reading situation of real citizens and has converged the opinions necessar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effective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키워드: 고양시 도서관, 독서실태조사, 독서환경, 도서관 이용,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Goyang Municipal Libraries, Reading Survey, Reading Environment, Library Use,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 * 본 연구는 2022년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2023~2027)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조교수(songery@daelim.ac.kr / ISNI 0000 0004 9246 0812) (제1저자)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gshoang@daelim.ac.kr / ISNI 0000 0004 6335 5255) (공동저자)
*****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ksk2012@cmu.ac.kr / ISNI 0000 0004 6432 113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85-308,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285>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ECD(2019)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역량들 중 하나로 문해력(Literacy)을 제시하였다. 사전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해력(文解力)’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해석해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써,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a)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2020. 9. ~ 2021. 8.)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2017년 62.3%, 2019년 55.7%에 이어 50% 미만으로 떨어진 첫 수치이기도 하다.

2006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입법 배경도 우리나라의 낮은 독서율과 무관하지 않다. 2005년 법안 발의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조사대상국 중 평균 독서시간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독서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독서문화진흥법」의 주된 제정 추진 이유였기

때문이다(김수갑, 2015). 이후 「독서문화진흥법」은 부처명 변경 등의 사유로 몇 차례의 일부 개정 작업은 거쳤으나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에 근거해 5개년 단위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운영해왔고(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3년 현재에는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중점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 법에 근거해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의 독서문화 실태와 현실을 반영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역시 이러한 배경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2017-2022)’을 수립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회적 독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바 있다. 2022년 인구 100만 특례시의 자치단체로 승격된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 전이었던 2020년 9월에 고양시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운영·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2년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고양시의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연구 방법의 하나로,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파악·분석

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는 고양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자들의 구성 및 조사 진행 방식 등은 국민독서실태조사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1.2 선행 연구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고, 1993년 정부 지정 '책의 해' 사업 일환으로 '제1회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혹은 2년 주기로 조사를 이어오다 2012년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조사 주기를 확정해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행을 위해 5년 주기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단위별로 독서실태 조사를 수행해 해당 결과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한 연구는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행된 일부 사례들(진천군, 2019; 파주시, 2021) 외에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는 특정 계층의 독자들, 혹은 특정 독서 매체들을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특정 독자층들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이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권은경(2012), 김성준(2014), 오유리, 오정례(2020), 김혜정, 허모아(2021)의 연구를, 대학생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종문, 주용국(2016), 정대근(2022), 권이은(2021)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권은경(2012)은 연구자가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OECD에서 실시한 PISA 2009의 데이터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국민독서실태조사 중 중학생들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독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김성준(2014)은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독서 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독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오유리와 오정례(2020)는 전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수행해 독자 유형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김혜정과 허모아(2021)는 수도권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독서 행위와 독서태도를 기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경우, 이종문과 주용국(2016)은 A대학교 문과대학 학생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학과별 독서 역량을 분석해 전공독서의 양과 질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대근(2022)은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권이은(2021)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의 설문과 FGI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학생이 아닌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차미경, 송승섭(2006)의 연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균, 김성애, 김정현(2007)의 연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황금숙, 김수경, 안인자(2014)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중 병영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된 차미경과 송승섭(2006)의 연구는 2개 사단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독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병사들의 독서 환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병영도서관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이해균, 김성애, 김정현(2007)의 연구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독서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실태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그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황금숙, 김수경, 안인자(2014)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독서환경과 독서문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도서관)가 수행해야 할 제도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특정 독서 매체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로는 로맨스 소설 전자책 독서 실태를 분석한 이종문(2019)과 고등학교 독자들의 웹툰 및 웹소설 읽기 실태를 분석한 윤미영(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종문(2019)은 로맨스 소설 전문 전자책 유통사인 A사 플랫폼을 토대로 장르별 구독 실태와 이용 책 수,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전자책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윤미영(2022)은 고등학생들의 웹툰과 웹소설 읽기 실태를 분석해

웹툰 및 웹소설 독자가 고등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두 연구들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전통적인 종이책이 아닌 전자 형태 자료의 독서를 독서 범주로 간주해 실제 독자들의 이용 실태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독자층, 혹은 특정 독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및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연구에서 설정한 대상 독자들의 독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독서 태도와 독서 만족도, 독서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조사 내용들을 참고해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실태 조사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고양시 독서실태 조사

2.1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조사·분석

고양시 시민 대상 독서 실태 조사를 위한 문항 구성은 2021년 수행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 및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조사 내용의 주요 측정 항목들(독서량·독서시간 등의 독서 경험, 독서태도 및 목적, 독서 장애요인, 독서활동, 독서효과, 도서관 이용 등 독서환경 등)을 참고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고양시 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독서자

실태 파악을 위한 항목(독서활동·동아리 참여 유무, 독서활동 비참여 사유 등)까지 포함해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960명과 초·중·고등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각각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구분해 진행하였기에 응답 대상에 따라 각각 응답자 현황을 포함한 5개 범주로 나누어 성인 28문항, 학생 36문항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설문지 항목 및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범주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고양시 거주 성인	1.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시간 • 독서 시간 • 독서 인식 및 이용 독서매체 • 독서 태도 • 문해력/독해력 • 독서 환경(가정/학교/사회) • 독서의 유용성 • 독서량(독서 매체별), 독서량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매체 선호 이유 • 독서 빈도 • 독서 목적 • 독서 장애요인 • 독서 장소 • 책 선택 시 이용 정보 • 책 구입 경로, 책 구입처 • 직장 독서환경
	2. 도서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 경험 •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이용 종류,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방문 빈도, 도서관 이용 만족도 • 도서관 비 이용 이유 	
	3. 독서활동 및 독서동아리(독서 모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활동 참여 유무 • 참여해 본 독서활동 및 만족도 • 독서활동 비참여 이유 • 희망 독서활동 및 희망 독서활동 종류 • 독서동아리 참여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해 본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참여 이유 및 만족도, 도서관에 바라는 서비스 •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 희망 독서동아리 종류
	4.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 인지 여부(정보제공 및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 •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 참여 여부(정보제공 및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 •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정보제공 및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세 가지 영역 중 진흥사업에 미치는 영향 • 독서진흥사업 정보 취득 방법 • 고양시에 바라는 정책 및 사업(자유의견) 	
	5. 응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거주지, 거주기간, 동거 가족 구성, 월 평균 가구 소득 	
고양시 거주 학생	1.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시간 • 독서 시간 • 독서 인식 및 이용 독서매체 • 독서 태도 • 문해력/독해력 • 독서 환경(가정/학교/사회) • 독서의 유용성 • 독서량(독서 매체별), 독서량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매체 선호 이유 • 독서 빈도 • 독서 목적 • 독서 장애요인 • 독서 장소 • 책 선택 시 이용 정보 • 책 구입 경로, 책 구입처
	2. 학교도서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이용빈도 • 학교도서관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이용시 불편한 점 • 독서활동 시 필요한 것
	3. 공공도서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인식 •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공공도서관 만족도 •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 • 바라는 공공도서관의 모습
	4.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독서 모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독서시간, 아침독서시간의 유용성 • 독서지도 경험 유무 • 학교 독서프로그램 참여 유무, 참여 프로그램 및 만족도 • 독서활동 비참여 이유 • 희망 독서활동 유형 •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유무 및 만족도 •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독서동아리 유형 •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구입 방법 •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한 독서활동 • 독서생활을 위해 부모님, 선생님께 바라는 점 • 고양시 '친구야 책방가자'(고양 북페이)의 유용성 • 독서생활을 위해 공공도서관에 바라는 점
	5. 응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동거 가족구성 	

설문 진행은 성인의 경우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로, 학생의 경우는 조사원(또는 교사) 통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월)부터 6월 9일(목)까지 약 4주 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지역과 기간, 조사 대상 분포, 자료 수집 방법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s와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리·분석하였

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성인 대상 설문 분석 결과

2.2.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인 대상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남성(447명, 46.6%)에 비해 여성 응답자 비율(513명, 5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218명, 22.7%),

<표 2>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지역		고양시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조사 기간	대상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1년 간)
	실시 기간	2022년 5월 16일 ~ 6월 9일
조사 대상	성인(960명)	고양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960명(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320명)
	학생(540명)	고양시 거주 학생 540명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각 180명)
자료 수집 방법	성인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타계식 조사)
	학생	조사원(또는 교사) 통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자계식 조사)

* 「국민독서실태조사」의 학생 조사 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함

<표 3> 설문 조사 응답자(성인)의 인구 통계 현황

구분		응답수	응답률
전체		960명	100%
성별	남	447명	46.6%
	여	513명	53.4%
연령	20대	174명	18.1%
	30대	218명	22.7%
	40대	180명	18.8%
	50대	166명	17.3%
	60대 이상	222명	23.1%
고양시 거주 기간	1년 미만	20명	2.1%
	1년 이상 ~ 3년 미만	86명	9.0%
	3년 이상 ~ 5년 미만	91명	9.5%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명	21.9%
	10년 이상 ~ 20년 미만	276명	28.8%
	20년 이상	277명	28.9%

40대(180명, 18.8%), 20대(174명, 18.1%), 50대(166명, 17.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은 20년 이상(277명, 28.9%), 10년 이상 20년 미만(276명, 28.9%), 5년 이상 10년 미만(210명, 21.9%), 3년 이상 5년 미만(91명, 9.5%), 1년 이상 3년 미만(86명, 9.0%), 1년 미만(20명, 2.1%)으로 파악되었다.

2.2.2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관련

독서 생활에 대한 질문에 앞서 고양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3순위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및 영화보기(554명, 57.7%), 책, 만화책, 신문, 잡지 등의 독서(438명, 45.6%), 휴식 및 수면(398명, 41.5%), 운동(290명, 30.2%), 게임 및 SNS(250명, 26.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고양시민들은 여가 활동 중 '독서'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가 시간 중 독서를 할 때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종이책 기준으로 평일 48.8분, 휴일(주말 포함) 57.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평소 '독서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이 중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3순위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은 종이책(857명, 89.3%)과 전자책(616명, 64.2%)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로 응답한 것은 '종이책(727명, 7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로 살펴보면 대체로 '독서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유형은 '종이로 된' 책, 신문, 잡지였으며, 종이와 아닌 형태로는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을 독서매체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표 5〉 참조).

독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응답한 내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고양시민들은 독서에 대해 '독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80.8점),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70.6점), '나는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65.4

〈표 4〉 하루 평균 독서시간(성인)

구분	평일	휴일(주말 포함)
종이책	48.8분	57.5분
전자책(웹소설/웹툰 포함)	38.4분	41.3분
오디오북	18.1분	17.8분

〈표 5〉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과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1+2+3순위)(성인)

구분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종이신문	오디오북	종이만화책	종이잡지	웹툰	인터넷신문	인터넷검색정보	블로그/카페	웹진	소셜미디어	챗북 콘텐츠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	89.3%	64.2%	45.9%	40.4%	40.0%	39.9%	35.9%	32.9%	31.5%	20.9%	20.3%	20.0%	18.0%	5.5%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	75.7%	38.8%	23.0%	18.4%	16.1%	14.0%	13.2%	18.6%	19.6%	13.5%	9.6%	3.5%	8.0%	1.0%

짐), '독서가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진다'(56.4점)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 역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84.7%(813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45명, 4.7%)'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체로 독서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1년 간 독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독서를 전혀 하지 않은 비독서자(458명, 47.7%)보다 1년에 한 권 이상이라도 읽은 독자(502명, 52.3%)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98명, 58.1%)이 남성(204명, 45.6%)보다 독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독자가 많은 연령대는 20대(107명, 61.5%), 40대(105명, 58.3%), 50대(96명, 57.8%), 30대(121명, 55.5%), 60대 이상(73명, 32.9%)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최근 1년 간 독서량 평균의 경우는 종이책 3.0권, 전자책 2.1권, 오디오북 1.0권으로 응답되었는데, 종이책은 40대가, 전자책 및 오디오북은 20대가 독서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1, 2순위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의 상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462명, 48.1%),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375명, 39.1%), '심리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315명, 32.8%)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업무 등의 활동으로 독서에 할애할 물리적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책 입수 경로(복수 응답)에 대한 상위 3순위 응답은 '직접 구입해서 본다(서점, 인터넷 포함)'(547명, 57.0%), '도서관에서 빌려본다'(465명, 48.4%),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본다'(299명, 31.1%)로 고양시민들이 책을 입수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3 도서관 이용 관련

최근 1년 간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324명, 33.8%)가 없는 경우(636명, 6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응답자(174명, 78.4%)가, 독서 경험 여부로는 비독서자(458명, 100%)가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 참조).

최근 1년 간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주로 이용한 도서관 유형을 복수 응답하

〈표 6〉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독서 경험(성인)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960명	52.3%	47.7%
성별	남	447명	45.6%	54.4%
	여	513명	58.1%	41.9%
연령	20대	174명	61.5%	38.5%
	30대	218명	55.5%	44.5%
	40대	180명	58.3%	41.7%
	50대	166명	57.8%	42.2%
	60대 이상	222명	32.9%	67.1%

〈표 7〉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도서관 이용 경험(성인)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960명	33.8%	66.3%
성별	남	447명	31.5%	68.5%
	여	513명	35.7%	64.3%
연령	20대	174명	39.1%	60.9%
	30대	218명	33.5%	66.5%
	40대	180명	42.2%	57.8%
	50대	166명	35.5%	64.5%
	60대 이상	222명	21.6%	78.4%
독서 경험	독자	502명	64.5%	35.5%
	비독서자	458명	-	100%

도록 한 결과 공공도서관(292명, 90.1%), 작은도서관(189명, 58.3%), 직장도서관(65명, 20.1%), 학교도서관(52명, 16.0%), 전문도서관(40명, 12.3%) 순으로 많이 답하였다. 도서관 이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한 상위 3순위 응답은 ‘독서를 하거나 책을 빌리기 위해’(249명, 76.9%), ‘공부, 학습을 하기 위해’(139명, 42.9%), ‘전자자료, 자료조사 등을 위해’(88명, 27.2%)로 파악되었고, 도서관 방문 빈도는 월 1~3회인 경우가 50.9%(165명)로 가장 높았다.

한편,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378명, 59.4%), ‘도서관에 갈 필요성이 없어서’(360명, 56.6%),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146명, 23.0%), ‘개관시간이 맞지 않아서’(80명, 12.6%), 기타(74명, 11.6%),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37명, 5.7%), ‘이용방법을 몰라서’(36명, 4.7%), ‘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가 없어서’(30명, 4.6%), ‘도서관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서’(13명, 2.0%) 순으로 나타나, 도서관 비이용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질문했던 독

서를 하지 않는 이유인 ‘시간이 없어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사유로 꼽은 ‘물리적 거리’ 및 ‘개관시간’, ‘원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없는’ 문제 및 ‘기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2.2.4 독서활동 및 독서 동아리(독서모임) 참여 관련

최근 1년 간 독서 관련 활동이나 행사 참여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1%(145명)인데 비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4.9%(815명)로 나타나 독서활동 경험이 대체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서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독서행사(전시, 강연, 세미나 등)(77명, 53.1%), 독후활동(독후감, 서평, 독서토론 등)(50명, 34.5%), 독서캠페인(북스타트, 책 읽는 가족 등)(43명, 29.7%), 독서치유(43명, 29.7%), 독서교육(36명, 24.8%) 순이었으며,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는 만족(103명, 71.0%), 보통(28명, 19.3%), 불만족(14명, 9.7%)으로 응답해 대체로 참여 독서 활동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미참여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19명, 26.9%),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169명, 20.7%),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163명, 20.0%),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130명, 9.4%),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77명, 5.2%),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42명, 5.2%) 순으로 응답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향후 독서 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이 '참여하겠다'(557명, 58%)로 불참 의사(403명, 4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내용(〈표 8〉 참조)을 참고해 도서관 등 관련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독서활동 및 관련 행사를 유치·홍보한다면 고양시민들의 독서활동 진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년 간 독서동아리(독서모임) 참여 경

험 역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6%(131명)인데 비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6.4%(829명)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의 동아리(모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동아리 유형은 직장(학교) 독서동아리(43명, 32.8%), 지역(동네) 독서동아리(42명, 32.1%), 온라인(인터넷 카페 등) 독서동아리(42명, 32.1%), 도서관 독서동아리(26명, 19.8%), 가족 독서동아리(22명, 16.8%), 유료 독서동아리(21명, 16.0%), 서점 독서동아리(18명, 13.7%), 출판사 북클럽(16명, 12.2%) 순이었고, 참여한 동아리 활동 만족도는 만족(81명, 61.8%), 보통(37명, 28.2%), 불만족(13명, 9.9%)으로 다수가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서 동아리에 미참여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72명, 32.8%),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201명, 24.2%),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보 및 방법을 알지 못해서'(121명, 14.6%),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93명, 11.2%),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88명, 10.6%),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35명, 4.2%), '기타'(19명, 2.3%) 순으로 앞서 다른 활동들의 미참여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앞으로의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의 경우, 긍정(422명,

〈표 8〉 향후 참여해보고 싶은 독서 활동(성인)

구분	사례수	독서치유	독서행사	독서교육	독서캠페인	독후활동	기타 활동	
전체	557명	51.3%	50.6%	30.3%	27.3%	27.1%	5.0%	
성별	남	240명	42.1%	52.5%	29.2%	30.0%	27.1%	5.0%
	여	317명	58.4%	49.2%	31.2%	25.2%	27.1%	5.0%
연령	20대	110명	52.7%	54.5%	20.9%	29.1%	30.0%	4.5%
	30대	143명	46.9%	49.7%	35.7%	37.1%	27.3%	7.0%
	40대	101명	46.5%	50.5%	24.8%	28.7%	28.7%	3.0%
	50대	88명	58.0%	47.7%	31.8%	17.0%	23.9%	8.0%
	60대 이상	115명	54.8%	50.4%	36.5%	20.0%	25.2%	2.6%

44%)보다 부정(538명, 56%) 응답이 높아 독서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독서 활동이나 문화생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 홍보 활동과 함께 기존 동아리 참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2.5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 관련

고양시민들이 고양시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은 도서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밴드 등)(372명, 38.8%), 길거리 현수막(140명, 14.6%), 지인, 이웃 등(119명, 12.4%), 지역 신문 및 TV 광고(112명, 11.7%), 도서관 문자 메시지(82명, 8.5%), 전단지 및 홍보지(78명, 8.1%)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방식

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여부(복수 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지도가 높은 사업의 상위 5개 항목은 스마트도서관 9개소 운영(42.4%),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41.5%), 상호대차 서비스(39.5%), 도서관 SNS(36.0%),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공도서관 건립(35.8%)으로, 참여가 많은 사업의 상위 5개 항목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66.3%), 상호대차 서비스(58.3%, 도서관통 서비스(54.4%), 친구야 책방가자(48.7%), 스마트 도서관 9개소 운영(45.9%)으로 답하였다(〈표 9〉 참고).

현재 추진 중인 고양시 도서관의 사업들 중 독서활동 진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 사업을 3개 범주(정보제공 및 홍보, 독서문화지원사업, 독서시설 기반 마련)로

〈표 9〉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사업 구분		인지도	참여도	독서진흥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정보제공 및 홍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7.5%	66.3%	20.6%
	도서관통 서비스(카카오톡 활용 정보제공 서비스)	25.8%	54.4%	40.7%
	상호대차 서비스(책누리, 책바다 등)	39.5%	58.3%	55.1%
	도서발굴단(어린이/성인)의 도서 추천 및 책꾸러미 서비스	20.6%	33.3%	27.9%
	도서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36.0%	43.9%	30.6%
	고양 라이브러리(독서문화 프로그램 안내지)	24.2%	42.7%	25.0%
독서문화지원사업	독서동아리 지원(도서관 동아리, 서점동아리, 외부동아리 지원)	19.7%	30.2%	22.0%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21.3%	36.3%	38.9%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20.2%	38.7%	25.8%
	독서진흥 행사(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독서토론 한마당 등)	30.1%	26.6%	33.6%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34.2%	27.4%	42.7%
	친구야 책방가자(고양 북페이 도서교환권 지급)	20.3%	48.7%	37.0%
독서시설 기반 마련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공도서관 건립	35.8%	41.6%	45.8%
	스마트도서관 9개소 운영	42.4%	45.9%	55.2%
	특성화 도서관 4개소 운영	27.5%	42.4%	24.2%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1.5%	45.7%	45.6%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 협력사업	19.1%	35.0%	18.6%
	메이커스페이스, 웹툰 창작실 운영	12.5%	33.3%	10.5%

나누어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정보제공 및 홍보'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528명, 55.1%)가, '독서문화지원사업'에서는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10명, 42.7%)이, 마지막으로 '독서시설 기반 마련'에서는 스마트도서관 9개소 운영(530명, 55.2%)가 독서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업인 것으로 지목되었다.

2.3 학생 대상 설문 분석 결과

2.3.1 인구통계학적 특징

고양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인 응답자와는 반대로 여학생(252명, 46.7%)에 비해 남학생의 응답 비율(288명, 53.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초·중·고등학교) 및 거주 지역별(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응답자는 각 180명(33.3%)씩 동일하게 배분하였고, 가족 구성 유형 구분의 경우는 <표 10>과 같이 파악되었다.

2.3.2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관련

고양시 초·중·고등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 3순위까지 복수 선택하

도록 한 결과,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및 영화보기(283명, 52.4%), 게임 및 SNS(251명, 46.5%), 책, 만화책, 신문, 잡지 등의 독서(210명, 38.9%), 휴식 및 수면(208명, 38.5%) 등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인 응답자들의 경우 '독서'가 여가 활동 중 2순위였던 데 비해 학생들은 3순위로 나타났으며, '게임 및 SNS' 항목의 경우는 성인(5순위)에 비해 학생 응답자(2순위)의 순위가 높아, 여가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PC 이용 비율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 중 독서를 할 때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종이책 기준 평일 52.8분(성인 48.8분), 휴일(주말 포함) 60.7분(성인 57.5분)인 것으로 응답해, 학생들의 평균 독서시간이 성인에 비해 평균 3-4분 가량 더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1> 참조).

학생들이 평소 '독서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이 중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3순위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은 종이책(456명, 84.4%)과 전자책(292명, 54.1%)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로 응답한 것은 '종이책(401명, 74.3%)'

<표 10> 설문 조사 응답자(학생)의 인구 통계 현황

구분		응답수	응답률
전체		540명	100.0%
성별	남	288명	53.3%
	여	252명	46.7%
가족구성	부모님과 거주	501명	92.8%
	형제자매와 거주	85명	15.7%
	조부모님과 거주	11명	2.0%
	부모님, 조부모님과 거주	20명	3.7%
	기타	10명	1.9%

〈표 11〉 하루 평균 독서시간(학생)

구분	평일	휴일(주말 포함)
종이책	52.2분	60.7분
전자책(웹소설/웹툰 포함)	40.0분	46.9분
오디오북	22.2분	24.2분

〈표 12〉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과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1+2+3순위)(학생)

구분	종이책	전자책	종이 만화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 북	종이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검색 정보	소셜 미디어	웹진	블로그 /카페	팟캐스트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	84.4%	54.1%	40.9%	38.7%	38.0%	36.3%	33.1%	32.0%	30.2%	23.9%	20.9%	18.7%	18.3%	5.9%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	74.3%	29.3%	18.3%	19.4%	27.4%	16.1%	11.3%	13.0%	15.6%	15.7%	11.9%	4.3%	10.4%	1.9%

으로 성인 응답자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응답 항목들을 살펴보면 성인들이 대체로 ‘종이로 된’ 책, 신문, 잡지를 독서매체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학생들은 종이책과 종이 만화책을 제외하면,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등을 종이신문이나 잡지보다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표 12〉 참조).

독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응답한 내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학생들은 독서에 대해 ‘독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75.3점),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65.6점), ‘나는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61.2점), ‘독서가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진다’(50.0점)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 역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77.8%(420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5명, 4.6%)’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체로 독서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1년 간 독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서를 전혀 하지 않은 비독서자(60명, 11.1%)에 비해 1년에 한 권 이상이라도 읽은 독자(480명, 88.9%)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독자와 비독서자의 비율 차이(4.6%)가 크지 않았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232명, 92.1%)이 남학생(248명, 86.1%)보다 독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생(163명, 90.6%), 중학생(160명, 88.9%), 초등학생(157명, 87.2%)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독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최근 1년 간 독서량 평균은 종이책 10.9(성인 3.0)권, 전자책 5.9(성인 2.1)권, 오디오북 2.3(성인 1.0)권으로 답해 학생들이 성인 응답자에 비해 독자가 비율이 높은 만큼 독서량도 많았다.

독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1, 2순위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의 상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315명, 58.3%), ‘공부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270명, 50.0%), ‘책 읽는 것이 싫고

〈표 13〉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독서 경험(학생)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4명	88.9%	11.1%
성별	남	288명	86.1%	13.9%
	여	252명	92.1%	7.9%
학년	초등학생	180명	87.2%	12.8%
	중학생	180명	88.9%	11.1%
	고등학생	180명	90.6%	9.4%

습관이 들지 않아서'(147명, 27.2%) 순으로 응답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서를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3순위 응답의 경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고 한 성인과 다르게 '책 읽기'의 선호도에 대한 답변이 두드러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교육이나 활동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책 입수 경로(복수 응답)에 대한 상위 3순위 응답은 '도서관에서 빌려본다'(297명, 55.0%), '직접 구입해서 본다(서점, 인터넷 포함)'(245명, 45.4%), '집에 있는 것을 읽는다'(134명, 24.8%)로, 성인들의 도서 입수 경로 1위가 '구입', 2위가 '도서관 대출'이었던 데 비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3.3 학교도서관 이용 관련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이용 빈도와 목적을 질문한 결과,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2번(231명, 42.8%), 한 달에 1~2번(190명, 35.2%), 일 년에 1~2번(45명, 8.3%), 거의 매일(43명, 8.0%), 방문하지 않는다(31명, 5.7%) 순으로 답했으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목적은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기 위해'

(183명, 36.0%), '학교 공부나 숙제를 하기 위해'(71명, 13.9%), '독서하기 위한 공간 활용'(62명, 12.2%)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도서관에서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도서를 많이 구비하는 것'(189명, 35.6%), '다양한 독서프로그램'(108명, 20.0%), '독서할 수 있는 공간'(71명, 13.1%), '이용 시간의 확대'(70명, 13.0%)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독서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3.4 공공도서관 이용 관련

학생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책을 빌리는 곳'(182명, 33.7%),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123명, 22.8%), '문화생활을 누리는 곳'(110명, 20.4%) 등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거주 지역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가본 적 있다'(410명, 75.9%), '알고는 있지만, 가본 적 없다'(106명, 19.6%),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24명, 4.4%)의 순으로 응답해 많은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만족도는 만족(257명, 62.7%), 보통(143명, 34.9%), 불만족(10명, 2.4%)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276명, 67.3%),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60명, 14.6%),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43명, 10.5%) 등의 순서로 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책을 빌리는 곳',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동일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방문·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한 도서관에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원/과외로 바빠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22.9%), '집에서 멀어서'(17.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12.1%)가 가장 높은 3가지 사유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에 대해 복수응답하도

록 한 질문에서는 〈표 15〉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고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의견들을 참고해 장서 확충 및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한다면 학생 이용자 유입을 늘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5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독서모임) 참여 관련

학생들에게 현재 다니는 학교에 '아침독서' 시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394명, 73.0%)는 응답이 있다(146명, 27.0%)는 데 비해 매우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없다'고 답한 비율이 고등학생(153명, 85.0%), 중학생(127명, 70.6%), 초등학생(114명, 63.3%)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아침독서 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독서 시간이 있다고 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시간이 책 읽는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103명, 70.5%)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침독서 시간이 없는 경우는 '아침독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217명, 55.1%)'는 응답이 과

〈표 14〉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만족하는 이유(학생)

구분	응답수	응답률
전체	140명	100%
학원/과외로 바빠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32명	22.9%
집에서 멀어서	24명	17.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17명	12.1%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10명	7.1%
책을 찾는 것이 복잡해서	10명	7.1%
책이 낡고 지저분해서	10명	7.1%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10명	7.1%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9명	6.4%
일찍 문을 닫아서	7명	5.0%
시설이 낡고 불편해서	6명	4.3%
사서/직원들이 불친절해서	4명	2.9%
기타	1명	0.7%

〈표 15〉 학생들이 원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

구분	응답수	응답률
전체	540명	100%
읽고 싶은 책이 많은 공간	279명	51.7%
다양한 자료가 있는 공간	242명	44.8%
안락한 독서 공간	201명	37.2%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	173명	32.0%
필요한 공부를 하는 공간	169명	31.3%
카페 같은 곳	135명	25.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직원이 있는 공간	108명	20.0%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스터디룸)	97명	18.0%
체험, 전시 공간	71명	13.1%
책을 읽어주는 공간	55명	10.2%

반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아침독서’ 시간 편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해당 수업 후 책 읽기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다(235명, 43.5%), 보통(282명, 52.2%), 싫어졌다(23명, 4.3%) 순으로 응답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책 읽기에 대한 선호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학생들이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았던 독서지도 내용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독후감 및 서평 쓰기(206명, 38.1%), 독서 토론 및 발표(178명, 33.0%), 교과 연계 독서를 통한 과제 해결하기(174명, 32.2%), 정보 및 매체 활용 교육(122명, 22.6%),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122명, 22.6%), 도서관 이용 및 도서분류(116명, 21.5%), 저작권 교육(74명,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진행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은 없다(340명, 63.0%)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아 참여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200명, 37.0%)이 가장 많이 한 활동의 상위 3가지 유형은 ‘글 쓰기(내용요약, 독후감, 서평, 보고서 등)’(83명, 41.5%), ‘독서교실(책읽기와 다양한 독서활동)’(54명, 27.0%), ‘말하기 활동(책 대화, 독서토론, 발표 등)’(52명, 26.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120명, 60.0%), 보통(72명, 36.0%), 불만족(8명, 4.0%)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다.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활동 불참 이유는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3.5%),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21.5%),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20.3%),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13.5%),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11.2%)로 답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유 외에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어, 학생들이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고 한 〈표 16〉의 독서 활동들을 참고해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측 노력이 요구된다.

〈표 16〉 향후 참여해 보고 싶은 독서 활동(학생)

구분	사례수	독서 교실	독서 퀴즈 대회	탐방 활동	글쓰기	그리기 활동	독서 캠프	강연회	말하기 활동	독서 동아리	매체 제작 활동	도서 바자회, 책기증	아침 독서	전시 활동	
전체	540명	27.8%	23.9%	22.6%	21.5%	18.5%	18.3%	16.7%	16.3%	15.7%	15.0%	13.9%	13.3%	13.3%	
성별	남	288명	28.5%	22.9%	24.0%	19.4%	15.3%	19.1%	16.7%	20.1%	14.6%	14.9%	11.1%	13.9%	12.5%
	여	352명	27.0%	25.0%	21.0%	23.8%	22.2%	17.5%	16.7%	11.9%	17.1%	15.1%	17.1%	12.7%	14.3%
학년	초등학생	180명	29.4%	23.3%	20.0%	18.3%	21.1%	18.9%	12.8%	16.7%	11.7%	12.2%	13.3%	12.8%	18.9%
	중학생	180명	28.3%	25.6%	20.6%	27.2%	15.6%	19.4%	12.8%	13.9%	18.9%	13.3%	16.1%	16.1%	8.3%
	고등학생	180명	25.6%	22.8%	27.2%	18.9%	18.9%	16.7%	24.4%	18.3%	16.7%	19.4%	12.2%	11.1%	12.8%

학생들의 최근 1년 간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7.2%(417명)로 응답자 대부분이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44명, 34.5%),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110명, 26.4%),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보 및 방법을 알지 못해서’(62명, 14.9%),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62명, 14.9%),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39명, 9.4%)로 답해, 독서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서동아리를 주관하는 곳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독서동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학교 독서동아리(216명, 40.0%), 온라인 독서동아리(153명, 28.3%), 학교 밖 도서관 독서동아리(138명, 17.9%), 가족 독서동아리(92명, 18.7%), 서점 독서동아리(85명, 17.1%), 동네 독서동아리(76명, 15.4%)로 나타나, 학교 및 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동아리 경험이 있는 학생들(123명, 22.8%)의 경우, 학교 독서동아리(54.5%), 온라인 독서

동아리(22.0%), 가족 독서동아리(18.7%), 학교 밖 도서관 독서동아리(17.9%), 서점 독서동아리(17.1%), 동네 독서동아리(15.4%) 순으로 참여해 보았고, 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76명, 61.8%), 보통(39명, 31.7%), 불만족(8명, 6.5%)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4 성인 및 학생 설문 결과 요약 및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시사점

고양시에 거주 중인 성인(960명)과 학생(540명)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실태 설문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주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과 학생 응답자들이 ‘독서매체’라고 인식하는 자료 유형의 1, 2순위는 모두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파악되었으나, 성인의 경우 대체로 ‘종이로 된’ 책이나 신문, 잡지를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학생들은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등을 종이신문이나 잡지보다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책’의 형태를 주된 독서 매체로 인식하고는 있

으나, 그 외에도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검색 정보와 같이 전통적인 종이매체가 아닌 전자매체를 독서매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30% 수준으로 파악되어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있어 독서 대상 자료의 범주를 전통적인 종이 매체 외에도 웹툰, 인터넷 검색 정보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각 자료별 콘텐츠 형태에 따른 독서 진흥 활성화 방법 역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양시민들이 독서자료를 입수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성인은 '직접 구입' 다음으로 '도서관에서 빌려본다'고 답하였고 학생은 '도서관에서 빌려본다' 다음으로 '직접 구입'이라고 응답해,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들의 장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주요 기관인 고양시 도서관들은 다양한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필요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연차별 장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구입'의 응답 비율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양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높은 '지역서점 연계 바로대출서비스'의 개발을 검토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양 북페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태도와 관련해서는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7-80% 수준으로 높게 나

타나 고양시민 대부분이 독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성인 응답자의 47.7%, 학생 응답자 11.1%를 차지하는 비독서자들의 경우에는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독서활동이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진다고 답해 이들이 독서에 대해 쉽고 편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독서자들이 일상에서 책 읽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고양시민들의 연령대별 생애주기에 맞춘 '북스타트', '어린이 도서발굴단' 같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독서활동에 소외되어 온 5·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행사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넷째, 독서 장애 요인과 관련해 성인과 학생 모두 '다른 활동이나 공부(일) 때문에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학생의 경우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 독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책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독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주간', '가정의 달', '독서의 달'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관련 행사는 대면·비대면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 이용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나, 성인의 경우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있다고 한 응답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는 답변을 가장 많이 택했으나, 그 외에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라는 응답도 많았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유형은 ① 공공도서관, ② 작은도서관, ③ 직장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답해 성인과 학생 모두 생활 반경 내 접근이 편리한 도서관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양시는 독서진흥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독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서관 등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근 독서활동 및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성인 모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독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나은 학생들에 비해 성인들의 참여 경험 응답 비율이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독서활동 및 독서동아리 활동 불참 이유와 관련해 성인은 '시간이 없어서' 외에 '관련 정보 부족', '기회 부족'을, 학생은 '시간이 없어서' 외에 '기회 부족', '프로그램 부족'을 꼽아, 독서활동과 독서동아리 및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 채널들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참

여 계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독서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성인은 '독서치유', '독서행사', '독서교육'을 학생은 '독서교실', '독서퀴즈', '독서탐방활동' 등을 언급해, 연령별 특성에 따른 독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동아리 유형과 관련해서는 성인과 학생 모두가 '온라인 독서동아리'를 높은 순위(성인 1위, 학생 2위)로 답해 독서동아리 운영에 있어 온라인 방식을 확대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독서문화진흥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은 상위 5개 항목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사업은 '스마트도서관 9개소 운영', '상호대차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이 두 사업은 독서활동 진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꼽은 사업들도 포함되었다. 이 두 사업 외에 고양시민들이 독서활동 진흥에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는 앞서 독서활동에 불참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 '고양 북페이' 사업이 독서생활에 도움이 된다(62.8%)고 응답하였고, 해당 사업은 참여도가 높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중 4번째 순위로 꼽힐 정도로 시민 호응도도 높았기에 향후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있어 고양 북페이 사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검토가 요구된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분석해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양한 독자층 및 특정 독서 매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독서실태 조사 관련 선행 연구 및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설문 문항 등을 참고하여 성인 및 학생 응답자 특성을 반영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500명(성인 960명, 학생 540명)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고양시에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서매체에 대한 인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성인과 학생 모두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이 주요 독서매체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전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독서자료의 범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의 독서자료 범주에는 다양한 독서매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서자료 입수 경로가 '직접 구입'과 '도서관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 도서관들의 장서 확충과 함께 기존 독서문화진흥

사업 중 호응도가 높았던 '고양 북페이'를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고양시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지역서점 연계 바로대출서비스'에 대한 신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성인 응답자 중 비독서자 비율이 높은 점과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한 학생 답변 중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인 비독서자 외에도 학생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었을 때 독서에 대해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서를 쉽고 편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습관화 하기 위한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고양시민들의 독서활동 및 독서동아리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주요 불참 사유로 관련 정보나 참여 기회 부족 등을 언급했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 형태의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정보들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생활 반경 내에 위치한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이들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변 외에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라는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독서진흥 계획 수립과 관련해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반경 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독서문화진흥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및

독서활동 진흥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상호대차서비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지속·확대하는 것이 향후 독서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도서입수 경로와 관련한 시사점에서도 언급되었던 '고양 북페이' 사업 역시 성인 및 학생 응답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사업으로 나타나, 앞으로 고양시민들의 독서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특정 독자층(학생, 직장인, 장애인, 병사 등)이나 독서매체(전자책, 웹툰 등)를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함의들을 정리·제시하였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진천군(2019) 및 파주시(2021)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서활성화 정책 연구처럼 고양시의 차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인구 100만 특별시로 승격한 고양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1,500명 대상의 실태 조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민 독서실태 조사가 약 9천여명(성인 6천명, 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양시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고양시에서 앞으로 국민 독서실태 조사와 같이 정기적인 실태 조사 연구를 정례화한다면 향후 고양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은경 (2012).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49-269.
<https://dx.doi.org/10.16981/kliss.43.4.201212.249>
- 권이은 (2021).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56(3), 5-34.
<http://doi.org/10.20880/kler.2021.56.3.5>
- 김성준 (2014). 학생독서능력에 대한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51-71.
<https://dx.doi.org/10.16981/kliss.45.2.201406.51>
- 김수갑 (2015).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입법평가 Issue Paper 15-17-③). 한국법제연구원.

- 김혜정, 허모아 (2021). 청소년기 독서 수행 및 인식에 관한 실태 조사: 비독서의 이유와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9, 9-50. <https://dx.doi.org/10.17095/JRR.2021.59.1>
- 문화체육관광부 (2021a).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b).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오유리, 오정례 (2020). 전문계 고등학생의 독서 실태 및 독자 인식에 대한 연구. 독서연구, 56, 65-96. <https://dx.doi.org/10.17095/JRR.2020.56.3>
- 윤미영 (2022). 고등학교 독자의 웹툰, 웹소설 읽기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64, 265-298. <https://dx.doi.org/10.17095/JRR.2022.64.8>
- 이중문 (2019). 로맨스소설 전자책 독서 실태 분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5(3), 85-112. <https://dx.doi.org/10.21732/skps.2019.88.85>
- 이중문, 주용국 (2016). 문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독서 실태 분석 연구: A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49-165. <https://dx.doi.org/10.16981/kliss.47.4.201612.149>
- 이해균, 김성애, 김정현 (2007).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I: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특수교육저널, 8(3), 619-643.
- 정대근 (2022). 대학생의 독서태도 및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211-230. <https://dx.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진천군 (2019). 제1차 진천군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차미경, 송승섭 (2006).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33-351. <https://dx.doi.org/10.4275/KSLIS.2006.40.3.333>
- 파주시 (2021).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
- 황금숙, 김수경, 안인자 (2014).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독서문화 실태 분석 연구: 시흥스마트허브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297-317. <https://dx.doi.org/10.16981/kliss.45.1.201403.297>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 Notes. Available: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contac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Mikyeong & Song, Sung-Seob (2006). A survey of the reading habits of soldiers in the Korean armed fo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333-351. <https://dx.doi.org/10.4275/KSLIS.2006.40.3.333>

- Hoang, Gum-Sook, Kim, Soo-Kyoung, & Ahn, Inja (2014). Reading culture of industrial workers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ase studies of Siheung smart hub complex.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97-317.
<https://dx.doi.org/10.16981/kliss.45.1.201403.297>
- Jeong, Dae-Keun (202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211-230. <https://dx.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Jincheon County (2019). Final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1st Comprehensive Plans for Jincheon County Library Development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 Kim, Hyejeong & Heo, Moah (2021). A survey on reading performance and percept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reasons for non-reading and aspects of smartphone us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9, 9-50. <https://dx.doi.org/10.17095/JRR.2021.59.1>
- Kim, Su-Kab (2015).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Legislative Evaluation Issue Paper 15-17-③).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Kim, Sung-J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reading ability: focused on Jeollabuk-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51-71.
<https://dx.doi.org/10.16981/kliss.45.2.201406.51>
- Kwon, Een (2021). A survey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reading status and percep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6(3), 5-34. <https://dx.doi.org/10.20880/kler.2021.56.3.5>
- Kwon, Eun-Kyung (2012).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49-269.
<https://dx.doi.org/10.16981/kliss.43.4.201212.249>
- Lee, Hae-Gyun, Kim, Sung-Aa, & Kim, Jung-Hyun (2007). Method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8(3), 619-643
- Lee, Jong-Moon & Joo, Yong-Kook (2016). A study of reading of major subject books by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a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49-165. <https://dx.doi.org/10.16981/kliss.47.4.201612.149>
- Lee, Jong-Moon (2019). A study on romance novel reading status using e-book. *Studies of Korean Science*, 45(3), 85-112. <https://dx.doi.org/10.21732/skps.2019.88.85>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a).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b). Annual report on reading promotion.
- Oh, Youlee & Oh, Jungre (2020). Reading status and percep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6, 65-96. <https://dx.doi.org/10.17095/JRR.2020.56.3>

Paju (2021). A Study of Comprehensive Plans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in Paju City.

Yun, Miyeong (2022). Reading status and perception of webtoons and web novel reading by high school student reader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4, 265-298.

<https://dx.doi.org/10.17095/JRR.2022.64.8>